손 흥민과 박 지성

(롬4:1~8)

[롬] 4:1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 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롬] 4:2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써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롬] 4:3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매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롬] 4:4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삯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롬] 4:5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롬] 4:6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롬] 4:7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롬] 4:8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손 흥민과 박 지성>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합니다.

손 흥민 선수, 지금 독일의 분데스리가에서 활동 중인 선수입니다.
박 지성 선수는 얼마 전까지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에서 활동하던 모르는 사람이 없는 그런 축구선수입니다.
이분들에 대한 칭찬이 릴레이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독일의 축구 황제라고 불리는 독일 축구의 전설인 베켄바우어가 손 흥민 선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손 흥민은 Super Player다, 많은 골을 넣을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골도 만든다, 손 흥민의 축구 스타일을 보면 행복하다!' 대단한 칭찬이에요.
그리고 독일의 차붐을 일으켰던 차 범근 씨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손 흥민은 어린데도 정말 잘한다, 기술도 좋고 골도 잘 넣고 대담하다, 그 나이에 그렇게 하면 앞으로 내가 세웠던 기록도 넘어설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내가 세운 기록이라는 것은 차 범근 선수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98골인가를 넣지 않습니까? 그런 기록도 넘을 수 있을 것이라는 얘깁니다.
박 지성 선수에 대한 칭찬은 유독 퍼거슨 감독이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 '박 지성은 세계 최고의 선수 중 하나다, 문제는 그 사실을 그가 모른다는 것이다, 우린 박 지성이 있어서 오웬을 포기할 것이다, 그는 우리에게 밝은 미래를 알려줄 것이다' 아마 오웬이라는 유명한 선수를 영입하느냐 마느냐 하는 얘기가 있었는지, 아니면 오웬을 데리고 있다가 방출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또 '나는 박 지성보다 더 많이 달리는 선수는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 쉴 새 없이 달리는 것은 경기에 나선 박 지성의 본능이다, 그는 영리하고 그의 추진력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잘 아는 선수다, 또 어디에 빈 공간이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해내는 선수이기도 하다'
그래서 퍼거슨이 말한 내용 중에 제가 직접 읽어서 기억이 나는 것 중 하나는, '현대 축구는 박 지성 스타일로 가야만 한다' 그런데 박 지성 스타일이 뭐냐 하면 쉴 새 없이 뛰는 것, 그게 몸만 좋고 폐활량만 커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현대 축구가 지향해야 될 스타일이라는 겁니다.
활동량이 많고, 다음에 꼽은 게 자세입니다, 항상 자기가 골을 넣겠다는 게 아니라 팀이 골을 넣게 하겠다는 자세로 뛴다는 겁니다, 그런데 Super Player들이 그렇게 안 하지요.
그리고 총명합니다, 언제나 빈 자리를 찾아들어가서 경기의 흐름을 살려놓는다, 그래서 현대 축구는 박 지성 스타일로 가야 된다, 이런 말들을 했어요.

그런데 그 두 사람에 대한 칭찬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어떤 두드러진 차이가 나는 경향을 볼 수 있습니다.
손 흥민 선수에 대한 칭찬에는 반드시 골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갑니다.
박 지성 선수에 대한 칭찬에는 골을 많이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골에 대한 얘기가 상대적으로 극히 적습니다, 주로 활동량과 총명함과 자세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골을 많이 넣은 박 지성 선수에 대해서 왜 골 얘기를 안 할까요?
그리고 손 흥민 선수가 어쩌다가 상대방 수비수의 공을 차단해서 수비에 공헌한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는 한 마디도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두 선수가 매스컴이나 감독이나 관중들의 마음에 들게 되는 포지션이 정해져 있다는 얘기에요.
손 흥민 선수가 아무리 자기네 골대 앞에서 수비를 잘 봐도 매스컴과 감독과 관중은 그러한 손 흥민 선수를 칭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활동량이 많게 뛰어다녀도 칭찬하지 않아요.
전혀 안 움직이다가 어쩌다 한 번 온 볼을 붙잡고 한 골을 넣게 돼서 1대 0으로 이기게 되면 손 흥민 선수는 굉장한 칭찬을 받습니다.
포지션이 달라서 그래요.
박 지성 선수가 중원에서 뛰지 않고 상대방 골문 앞에서 공이 오기만을 기다리면 아무리 골에

대한 집요한 자세가 돋보여도 아무도 칭찬해주지 않습니다.
그들을 마음에 들어 하게 되는 포지션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로마서를 써내려가고 있는 사도바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핵심적인 관심은 의(義)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함을 받을 것인가?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마음에 들어 하실까 이 점입니다.
왜 이게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마음에 들어 하시면, 그 다음의 문제는 단 한 가지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삶의 문제는 다 물 흐르듯 되어져 갈 것입니다.
그것이 감옥에 갇히는 일이라도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 것이고, 인생이 풍랑을 만나더라도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 겁니다.
인생의 키(key)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들 것인가만 생각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은 포지션이 분명히 깨달아져야 가능한 일이라는 얘기에요.
도대체 하나님은 나를 손 흥민 선수처럼 공격수의 자리에 있을 때 마음에 들어 하시나, 박 지성 선수처럼 미드필더의 자리에 있을 때 마음에 들어 하시나, 이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밝히기 위해서 사도바울이 아브라함의 예를 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육신을 통해서 의롭다 함을 받은 게 없다, 그 다음 절에 행위로써 의롭다 함을 받은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육신과 행위를 연결시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행위라는 것은 반드시 육신이 움직여서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연결될 수밖에 없지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아무리 마음으로 우리의 몸을 움직여서 행위를 만들어내도 우리 마음이 육신을 움직이고 있는 그런 포지션에서는 하나님은 절대 우리 마음을, 우리 인격을, 나를 마음에 들어 하시지 않는다, 이런 얘깁니다.
내 마음에 포지션이 있습니다, 어떤 포지션인가 하면, 마음 그 자체로 머물러있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포지션입니다, 마치 골키퍼가 골대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에요.
그 다음 포지션이 어디냐 하면, 마음이 무엇인가를 좋아하게 되고 그 좋아하는 것을 향하여 가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포지션입니다, 무엇인가를 좋아하게 되는 마음의 위치.
세 번째는 좋아하는 것에 가 달라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 그 좋아하는 것에 달라붙은 상태에서 육신을 움직여서 그 좋아하는

것을 위해 행위를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네 단계의 포지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에 들어 하시느냐 들어 하시지 않느냐, 결정되는 포지션이 어디냐 하면, 마음 그 자체로 있을 때도 아니고, 마음이 육신을 움직이고 있는 위치에서도 아니에요.
마음이 무엇인가를 좋아해서 그곳에 달라붙는 그 두 단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에 들어 하시느냐 안 들어 하시느냐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 지성 선수의 위치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까지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반복해서 확인한 것이 뭐였나 하면, 열매라는 것은 그 행위를 말합니다, 즉 그 행위의 단계에서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 하시고 안 들어 하시는 게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얘깁니다.
행위가 열매로서 표징은 될 수 있어요, 그 전 단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결과요 표징으로서의 의미가 될 수는 있지만, 그 행위 단계에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즉, 스티브잡스가 스마트폰 혁명으로 세상을 바꿔놓고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은 그가 마음으로 몸을 움직여 만들어낸 행위에 의한 결과에요.
그러나 스티브잡스가 이렇게 대단한 일을 했지만, 하나님은 스마트폰 혁명 때문에 스티브잡스의 영혼을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얘깁니다.
칭기즈칸이 대륙을 정복했습니다, 그의 육신을 마음이 움직여서 대륙을 정복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이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박 근혜 씨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마음으로 육신을 움직여서 대통령의 업무를 잘 수행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 하시지 않습니다.
엄마로서 마음으로 육신을 움직여서 행위를 하면서 아이를 잘 길러냈습니다, 그래도 안 됩니다.
목사님으로서 마음으로 육신을 움직여서 목회를 잘해서 부흥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 하시는 포지션은 마음으로 육신을 움직여 이르는 행위가 일어나는 포지션이 아니에요, 손 흥민 선수의 포지션이 아니라는 겁니다.
박 지성 선수의 포지션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무엇을 좋아하느냐, 그래서 어디에 가서 달라붙어 있느냐, 바로 이 포지션에서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 하시고 안 들어 하시는 결정이 된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박 근혜 씨가 대통령이 돼서 대통령의 일을 하나도 잘 못했다, 이건 하나님께서 박 근혜 씨를 마음에 안 들어 하실 이유가 안 됩니다.
내가 지금 행동을 잘하고 있느냐, 못 하고 있느냐, 내가 하는 행동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 의해 주목받고 성공적으로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건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 대해서 갖게 되는 마음에 들어 하시는 포지션이 행위가 일어나는 포지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행위를 만들어내는 그 포지션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무엇을 좋아해서 거기에 마음을 내어주느냐 하는 단계에서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위를 아무리 못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에요.
목회하는 목사님을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 하는 포지션은 어디냐 하면, 목회를 하면서도 숫자적인 부흥보다 하나님 자신에게 마음을 두고 있는 포지션이라는 겁니다.
사업가가 사업을 잘 못해도 사업하면서 벌 돈 대신에 하나님께 마음을 두었을 때 하나님은 마음에 들어 하시고 사업이 잘되고 못되고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살 수 있게끔 해 주신다 이 얘깁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 하신다 안 들어 하신다가 결정되는 것인데, 믿음이란 뭐냐 하면 늘 말씀드리듯이 라틴어로 '크레도'라고 합니다.
이 '크레도'라는 말은 내 심장을 꺼내서 준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식을 마음에서 좋아해서 자식에게 내 심장을 주면 자식을 믿는 것이고, 내가 사업에게 내 심장을 내주면 내가 사업을 믿는 것이 됩니다.
믿음이 바로 심장을 꺼내주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얘기가 성립하는 이유는,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고 하는 말씀이 있고, 이 말씀을 뒷받침해주는 내용이 스테반 집사님이 사도행전에서 설교할 때입니다.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였다는 얘기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1등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제일로 좋아한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얘기에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사라도 있고, 앞으로 낳아야 할 자식도 있고, 재산도 있고, 중요한 게 많지만 그 모든 것들을 제치고 하나님께서 1등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 1등 했다는 이유가 뭐냐 하면, 아브라함이 자기의 심장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다는 얘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얘기에요.
그리고 이것은 어떠한 행위가 일어나기 이전의 일이라는 겁니다.
행위는 반드시 마음이 있고, 그 마음이 가만히 있질 않고 어떤 대상을 좋아하게 되고, 그 대상에 달라붙은 다음에 그 대상과의 관계에서 요청되는 일을 행위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 마음에 들어 의롭게 되었다는 얘기는, 아직 어떠한 행동도 하기 전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하나님을 좋아하게 되었고 하나님께 자기의 심장을 드리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심장을 자기의 사업에 두고 토지에 두고 있을 때, 또 조카 롯도 어떤 땅을 가질 것인가, 좋은 땅을 찾아서 마음을 두고 있을 때, 아브라함은 땅에 두지 않고 사업에 두지 않고 아내나 자식에게 두지 않고 하나님에게 마음을 두었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마음을 둔 상태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행동도 하지 않고 있을 때, 이미 마음에 들어 하셨다는 얘기에요.
사도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 말을 좀 바꿔 말하면, ‘아브라함이 심장을 꺼내 하나님께 드려…’ 이 뜻이거든요?
이걸 우리 삶으로 한번 갖고와봅니다.
‘영광의 돈이 김 집사님에게 보여…’ 이건 심장을 돈에다 준 경우에요.
또, ‘영광의 자식이 이 집사님에게 보여…’ 이분에게는 자식이 1등인 겁니다.
요 상태에서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 하시고 안 들어 하시고가 결정이 된다는 얘기에요.
마음에는 영광의 돈이 보이고 영광의 자식이 보이고 있는데, 집사라는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할 수없이 제직 부서 중 봉사부에 맡아서 주일에 주차장에서 봉사합니다.
그런다고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떠한 교회 봉사의 행위를 해도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 하시지 않습니다.
이미 그 행위 단계 이전에 마음이 어디로 가느냐의 위치에서 돈에게, 자식에게, 형통에 가있기 때문에, 그건 마음에 들 수가 없다는 얘기에요.
마음이 딴 데 가있으면서 교회에서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얼마만큼의 봉사와 헌금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마음에 들어 하시는 일은 결코 없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본문에서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삯을 은혜로 여

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은혜가 아니라 일한 것에 대한 삯은 오히려 빚이죠, 빚을 받아내는 거죠.
다음 5절이 중요합니다,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게 무슨 얘깁니까?
아무 일도 안 했습니다, 아무 행위도 안 했고 경건하지도 않습니다, 여기서 경건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근면 성실하고 충실하게 활동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처럼 움직이지도 않고 일도 안 하고 충성되지도 않은데, 행위에서 아무런 성실함이 나타나지 않는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여기실 수 있다고 믿는 자를 의롭다 여기신다는 겁니다.
아, 여러분, 이제는 삶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하나 하면,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왜냐하면 불법도 행위 차원 아닙니까?
왜 불법을 저질렀는가?
예를 들어 밧세바를 눈으로 봅니다, 마음이 밧세바를 향해 가서 달라붙었습니다.
그리고 간음이라는 행위를 하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야를 죽이는 살인이라는 행위를 했으며, 거짓말이라는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잘못을 깨닫고 마음을 밧세바에서 떼고 그 마음을 밧세바를 향하던 그 포지션에서 밧세바 대신에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그때는 밧세바에 붙어서 행했던 행위 차원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간과해주신다는 이야깁니다.

행위 차원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마음이 좋아서 심장을 내주었던 대상을 바꿔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께로 내 심장을 내어드리게 될 때는 행위의 쪽에서 일어난 모든 범죄까지도 하나님께서 간과해주신다는 얘기에요.
바로 이 사건이 십자가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죽을 때 우리 마음은 하나님 이외에 좋아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마음을 회수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이 주님 따라서 승천해서 하나님이 계신 하늘로 따라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의 심장이 하나님께 보내지게 되는 거예요.
이때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마음에 들어 하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마음에 들어 하실 때, 우리의 행위는 이제 어떤 결과로 나타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내 몸을 움직여서 이루고 싶어 하시는 것들이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3장 마지막에서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세우려 함이다'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오히려 더 잘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우리가 믿음을 제대로 가질 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장을 하나님께 드릴 때.

행위로 어떤 것을 행해도 하나님은 마음에 들어 하시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행위의 포지션 이전에 우리 마음이 무엇을 좋아하며 그래서 어느 대상에 우리의 심장을 꺼내 놓을 것이냐 하는 이 포지션에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들어 하시고, 안 들어 하시고를 결정하신다는 얘깁니다.
십자가에서 내 마음을 잡아당기는 매력적인 모든 이 세상 것들에 대해 죽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마음을 돌리셔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라' 고 마음에 들어 하심으로 하나도 신경 쓰지 않고 사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장을 꺼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온갖 고통을 당하시며 죽으셨습니다.
이 복음에 의지해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내 심장을 하나님께만 드림으로,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사는 에덴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